+ 이호준 · EBS 정책팀장

방송과 갯벌

'재원' 문제는 EBS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왜곡된 재원구조를 갖고 있다. 공적재원대 상업재원이 3대 8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BBC와 일본 NHK가 해내지 못한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이러닝'을 너끈히 해내고 있다.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게 EBS인 모두의 소망이다.

지난달에 가족들과 무창포 갯벌을 다녀왔다. 오랜만의 가족나들이였다. 뻘 범벅이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한 조개잡이도 색다른 즐거움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차창 너머로 너른 갯벌을 다시 보았다. 문득 '방송이 갯벌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할 살아있는 생활 터전이면서, 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EBS의 정책팀장이라는 자리도 머리가 복잡하고 할일이 많은 부서이다. 공영방송이라 생각해야 할 변수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방송과 교육을 아우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위상구조 변화에서부터 재원구조 개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겠다는 생각, 실질적인 교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항시 머리를 짓누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갯벌' 같은 방송 EBS에도 상당한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수평적 체계로 이동되는 가운데, 거대한 공룡들인 통신사업자들은 IPTV 등 이미 방송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한지 오래다. 통과여부를 두고 논란 중인 미디어법이 그렇고, 신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들이 매일매일 경계심을 북돋는다.

미디어 구조변동이 있을 때마다 중심에 있었던 EBS다. 지상파 재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이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EBS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불거지고 있다.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여러 얘기를 종합할 때, 공영방송법은 EBS와 KBS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뼈대이다.

공영방송별로 독립적으로 설치된 이사회 대신 하나의 공영방송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니 덩치가 작은 우리로서는 더욱 경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 회오리 속에서 EBS가 강조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언론으로서 방송기능 못지않게, 실용적 교육매체로서 방송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을 얘기하는 언론 못지않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EBS는 지난 2000년 '공사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많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지난 2008년 당초 EBS와 KBS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당시는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EBS의 독립성을 공공기관운영위원들에게 수차례 설명했고, 상당부분 먹혀들었다. 2009년 방송구조개편 논의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원' 문제는 EBS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왜곡된 재원구조를 갖고 있다. 공적재원대 상업재원이 3대 8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BBC와 일본 NHK가 해내지 못한 '방송'과 '인터넷'이 결합된 '이러닝'을 너끈히 해내고 있다.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게 EBS인 모두의 소망이다. 안정된 재원을 갖고 그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지난 2000년 수신료가 EBS에 할당되면서 '공영방송 수신료'로 개념이 변했다. 이번 공영방송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EBS의 핵심재원으로 'TV 수신료'를 명확히 자리매김 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어느 방송사보다 'EBS'가 TV 수신료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TV 수신료는 29년 동안 오르지 못했다. 매번 정쟁에 휘말려 묶여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수신료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고, 국가기간방송인 KBS와 미래를 여는 지식채널 EBS에 공정하게 배분 돼 시청자들이 더 큰 서비스에 빠져들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술현업과 정책부서를 오갔다. 방송엔지니어에서 눈을 살짝 다시 돌려 정책팀장의 입장에서 방송계를 바라보니 지상파방송이 보기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미 지상파방송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전쟁에 빠져들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커 보인다.
특히, 2012년 아날로그가 종료되고 Full HD 방송이 시작된다. 그때가 되면 아날로그가 종료되는 동시에 방송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재편되어 끝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의 사고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방송기술인들은 기술적인 관심만큼 방송정책들의 변화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EBS를 소중하게 지켜주었다. 방통융합, 구조개편 등 폭풍우 같은 외부 환경변화 속에서도 '미래지식채널'이 더욱 안정된 위상과 재원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